

의정소식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TF팀 연구활동 시작

고양시의회가 2022년 1월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2월 17일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고양시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은 특례시의회 조직 모형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의회와 차별화된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TF팀'에서 논의된 사항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용인시·창원시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전달하여 여기서 마련된 방안을 바탕으로 법령 제·개정과 행정권한 확보에 공동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서한 전달

고양시의회는 2월 22일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은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개통한 일산대교는 한강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km당 660원을 징수하고 있어 고양, 김포, 파주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 높은 반발을 사고 있다.

건강상식

봄철에 더 자주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요즘 사람들에게 '아토피'라는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의 대상이다. 아토피피부염은 매년 5월과 7월, 특히 10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건조한 날씨, 미세먼지, 꽃가루 등이 그 원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관리해야 할까.

출처: 질병관리청

아토피피부염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으로, 소아에서 흔히 나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가죽 중 천식, 비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증상은?

염증에 의한 붉은 발진과 심한 가려움증이 가장 큰 특징으로,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과 같은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물질)에 의해서 악화된다. 붉은 발진과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고, 긁은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이 부위에 피부염증이 생기면 더욱 심하게 가려워서 더 긁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치료법

- ① 원인 및 악화인자를 피하는 회피요법
- ② 적절한 목욕과 보습제 사용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관리하는 피부보습
- ③ 의사 처방에 따라 국소 스테로이드제 사용으로 가려움과 염증을 치료하는 약물요법

평소 관리법

- ① **꾸준한 치료** 증상이 금방 좋아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 ② **피부 보습**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목욕 후 3분 이내, 하루에 3번 이상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
- ③ **악화 요인 피하기** 급격한 실내온도 및 습도의 변화, 땀, 거친 재질이나 꼭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 ④ **침구 세탁**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므로 주변 환경 어디에서나 관찰되는 집먼지진드기의 서식 환경을 없애기 위해 침구를 세탁하고, 카펫을 없애는 것이 좋다.

